



농촌생활 백과사전 「林園經濟志」 남긴

조선 후기 서유구 (1764~1845년)

朴星來 (한국의국어대 사학과 교수/과학사)

조선 후기의 대표적 농학자 서유구(徐有榘·1764~1845년)는 대제학을 지낸 명옹(命膺·1716~1787년)의 손자이며, 이조판서 호수(浩修·1736~1799년)의 아들이다. 달성(達城) 서씨 3대가 모두 대단한 학자이며 당대의 정치가로도 꼽히는 말하자면 명문이라 할 수 있다. 지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인 서유구 역시 1790년(정조 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외직으로는 군수·관찰사를 거치고, 내직으로는 대교(待敎)·부제학·이조판서·우참찬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문에 이어진 전통을 계승하여 농학(農學)에 큰 업적을 남겼다.

농학발전에 큰 업적

그리고 서유구 농학의 대표작이 바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이다. 이 책은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또는 「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라고도 부른다. 1백13권 52책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인데, 조선시대에는 인쇄되어 출판된 일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지금은 몇가지 사진판(영인본)으로 나와 있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전원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기예와 취미를 기르는 백과전서로 생활과학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학서라 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물학, 박물관학 책이라고도 부를 만하다.

그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6개 부문(十六志)이란 다음과 같다. — ① 본리지(本利志, 권1~13) : 밭 갈고 씨 뿌리며 거둬들이기 까지 농사 일반을 다룬다. 전제(田制), 수리(水利), 토양지질, 농업지리와 농업기상, 농지개간과 경작법, 비료와 종자의 선택, 종자의 저장과 파종, 각종 곡물의 재배와 그 명칭의 고증, 곡물에 대한 재해와 그 예방 등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달라 농업도 그 만큼 다

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 맞는 농가월령(農家月令)을 만들려 노력하고 농기(農器)와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있다. ② 관휴지(灌畦志, 권14~17) : 채소를 포함한 식용식물과 약초 등을 다루고 있다. 산나물과 해초, 채소, 약초 등에 대한 고증, 파종 시기와 종류 및 재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③ 예원지(藝畹志, 권18~22) : 꽃에 대한 것을 앞서서처럼 다루고 있다. ④ 만학지(晩學志, 권23~27) : 31종의 과실류와 15종의 과류(瓜類), 25종의 목류(木類), 그리고 차와 대나무, 담배 등을 다룬다. ⑤ 전공지(展功志, 권28~32) : 뽕나무 재배를 비롯하여 옷감과 직조 및 염색 등 피복재료학에 관한 내용 ⑥ 위선지(魏鮮志, 권33~36) :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하는 이른바 점후적(占候的) 농업기상과 그와 관련된 점성적인 천문관측, 농촌에서 피해야 할 날(忌日) 등 ⑦ 전어지(佃漁志, 권37~40) : 가축과 야생동물 및 어류를 다룬 논저로서, 가축의 사육과 질병치료, 여러 가지 사냥법, 그리고 고기잡이와 어구(漁具)에 관한 설명이다. ⑧ 정조지(鼎俎志, 권41~47) : 각종 식품에 대한 주목할만한 의약학적 논의를 하고, 조미료 및 술 등의 제조법을 설명하고, 명절 음식도 설명한다. ⑨ 섬용지(贍用志, 권48~51) : 집짓기와 건축기술, 도량형 기구와 각종 공작기구, 복식과 실내장식 그리고 생활기구와 교통수단 등을 중국식과 조선식을 비교하여 다루고 있다. ⑩ 보양지(葆養志, 권52~59) : 식이요법과 정신수양, 아울러 육아법과 계절에 따른 섭생법을 양생월령표(養生月令表)로 해설하였다. ⑪ 인제지(仁濟志, 권60~87) : 의약 관계가 중심이지만, 끝에는 구황(救荒)식품 2백60종이 열거되어 있다. ⑫ 향례지(鄉禮志, 권88~90) : 지방에서 행해지는 관혼상제 및 일반 의식(儀式) 등에 관한 풀이이다. ⑬ 유예지(遊藝志, 권91~98) : 선비들의 독서법 등을 비롯한 취향을 기르는 각종 기예를 풀이한



조선 후기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낸 서유구(1764~1845년)는 조부와 부친의 가문과 전통을 계승하여 농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서유구의 농학 대표작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로 1백13권에 52책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농학지라기보다 농촌생활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 과학기술사 또는 농업기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다. 산법, 서법, 그림과 음악 등이 설명되어 있다. ⑭ 이운지(怡雲志, 권99~106): 선비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하여 서술한 것으로 차, 향, 꽃, 나무, 풀, 새, 그리고 문방구와 골동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⑮ 상택지(相宅志, 권107~108): 우리나라 지리 전반을 다룬 것. ⑯ 예규지(倪圭志, 권109~113): 조선의 사회경제를 다룬 것으로 국가 경제에서는 수입을 바탕으로 한 지출, 가정 경제에서는 절약과 절제를 강조한다. 물산의 유통, 무역, 금융, 농업경영도 다룬다. 전국 장시(場市)의 안내도 있다.

8백여종의 문헌 참고

말하자면 이것은 꼭 농학서가 아니라 일종의 농촌생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나눠 생각해 보자면 ①부터 ⑤까지는 농학 내지 생물학 분야라 할 수 있고, ⑥은 천문기상학에 속하며, 그 다음은 동물학, 그리고 의학학 분야가 골고루 다루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서유구는 이 책을 지으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책—특히 아버지의 「해동농서(海東農書)」, 할아버지의 「고사신서(攷事新書)」는 물론이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8백21종의 문헌을 참고한 것이 밝혀져 있다. 「농사직설」 「동의보감」에서 시작하여 「산림경제」 「택리지」 「고사촬요」 「과농소초」로 이어지는 조선 농학 내지 박물학의 주요 서적은 모두 참고해서 확대한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이의 「울곡전서(栗谷全書)」, 박지원의 「연암집(燕岩集)」,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 김육의 「유원총보(類苑叢寶)」 등 보다 일반적인 자료도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문헌들을 자신의 학문적 체계 속에 소화시켜 자기의 이론으로 쌓아 올린 데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장점이 있다. 특기할 것은 이 과정에서 인용서를 분명히 밝혀

이미 실전(失傳)된 우리 고유의 저서 일부를 부분적이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한국 과학기술사 또는 농업기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한국 생물학사 연구에 절대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본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유일본이 소장되어 있고, 광복 전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사본(轉寫本)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패지(紙紙)에 쓴 저자의 가장원본(家藏原本)은 일본 오사카(大阪)의 부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인본으로는 196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고전총서로 간행된 것이 있다. 그는 「임원경제지」를 쓰기 이전에 기초적 연구로서 농업기술과 농지경영을 주로 다룬 「행포지(杏浦志)」, 농업경영과 유통경제의 관련에 초점을 둔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농업정책에 관한 「경제책(經界策)」 등을 저술하였다고도 알려져 있다. 또 「누판고(鑪板考)」는 전국 각지의 목판들을 조사하여 분류, 해제한 책이다. 특히 그는 1834년(순조 34)에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때마침 흉년을 당한 이 고장 농민의 구황(救荒)을 위하여 구황식물인 고구마의 실제적인 보급에 도움이 되도록 강필리(姜必履)의 「감저보(甘藷譜)」, 김장순(金長淳)의 「감저신보(甘藷新譜)」 등과 중국, 일본의 관계 농서를 참고하여 「종저보(種藷譜)」를 펴 보급하였다. 우리나라 고구마 연구의 선구자도 되는 셈이다.

서유구는 스스로를 “오비(五費)거사”라 자칭한 일이 있다. 자신의 묘자리에 쓴 글이란 뜻의 “자찬묘표”(自撰墓表)에 나오는 말이다. 자신의 일생을 5시기로 나눠 헛되이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인데, 그 만큼 그는 스스로의 삶을 겸손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도 있을 듯하다. 1費는 자신의 성장기(1764~1790년)로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한 시기를 말한다. 2費는 그가 정부에 나가 규장각 등 관직에 근무하던 시기로 1790~1806년 사이를 가리킨다. 3費는 일단 뒤로 물러나 농업 연구 등 학문에 골몰하던 때로 1806~1823년 사이를 가리킨다. 4費는 그가 다시 관직에 나가 크게 성공하는 시기로 1823~1839년 동안이다. 5費는 은퇴기(1839~1845년)로 그가 「임원경제지」를 정리하는 등 학문 정리에 정진하던 시기이다. 그의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문간공 서유구의 과학사상의 공헌은 요즘에서야 겨우 우리 학계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